

# “구조조정 중단 · 체불 임금 지급해야”

### 대책위 “금호타이어 경영 실패 원인 · 근본 처방 밝혀야”

### 사측 “급여 지급 방안 마련중 · 경영정상화 합의 필요”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광주 지역 공동 대책위원회’가 1일(31일) 구조조정 · 자구계획안 강요를 중단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째 임금 체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지역 서민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미 재권단 협의회에서 2000억원의 자금이 지급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 재권단과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3개월째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을 무기로 구조조정과 자구계획안을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권단과 회사는 지난 2009년 워크아웃 당시 12월 급여부터 2010년 3월 급여까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급 ·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때도 회사가 어려워 유동성 자금이 없으니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재권단과 회사는 지난해 채무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부도

가능성을 언급했고, 1월까지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워크아웃이나 P플랜으로 갈 수 있다며, 채무연장은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달 중순 재권단 협의회를 통해 채무를 연장했다. 이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당해왔지만, 재권단과 회사는 경영실패의 원인과 근본 처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8년 전 임금 · 복지 수준이 원상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자구계획안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 명예퇴직, 30% 수준의

임금복지 삭감 등의 희생안’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임금 미지급은 유동성 고갈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이번주 중으로 12월 급여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임금 지급 및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형택 기자

## 디고교생, 가상화폐 훔치려고 바이러스 만들어

일본 고등학생이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했다가 체포됐다고 1월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경찰서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 카이즈카(貝塚)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지난해 10월 집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파일의 암호를 훔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가상화폐중 하나인 ‘모나코인’의 시세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학생이 인터넷 게시판에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자 도쿄(東京)도 에도가와(江川)구에 사는 회사원 출신의 남성이 다운로드를 하면서 경찰에 탐지가 잡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다”며 용의를 일부 부인했다.

## 이란, 美 부부 종교적 이유 27년형 · 16년형

이란이 이라크계 미국인 미술품 증개상 부부에게 그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라는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가 1월31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인권 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이란 지부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들 이중국적자 부부를 체포, 투옥한 뒤 가혹한 혁명재판소 회부를 앞두고 비공개 재판을 통해 이 같이 선고했다.

남편인 카란 비파다리는 27년형을 받았고 미국 영주권자인 부인 아프라니 네이사르는 16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인권센터는 남편 비파다리가 테헤란의 예민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인용해서 밝혔다. 편지에 따르면 부부는 조로아스터교 신자라는 이유로 지난 해 7월 체포되었으며 전에도 모국을 위해 기여하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거나 추방된 적이 많았다고 적혀있었다.

이 재판 사실은 아직 이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언론의 해명 요청에도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란에서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 이전 시대의 고대 종교로 이론상으로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아파 무슬림의 나라에서 차별과 박해의 대상이 되어 있다.

## 美 LA 남부해안 주택에 헬기 추락 5명 사상

미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해안의 한 주택에 1월30일 낮 (현지시간) 헬기가 추락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이 날 사고는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72km 지점의 뉴포트 비치 부근 고급 주택가에서 오후 1시 45분에 발생했으며 추락한 헬기는 4인승 로빈슨 R44 기종이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헬기 안에 타고 있던 탑승객은 4명이었으며 헬기가 추락한 주택에는 사고 당시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고 뉴포트 비치 경찰은 트위터에서 말했다.

지상에 있다가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팔레스타인 청년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사망

팔레스타인 10대 청년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월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은 팔레스타인 보건당국 관리를 인용,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북쪽 마을에서 리스 아부 나우(16)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 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스라엘 군도 청년이 숨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 무게르 마을 촌장인 파리지 알 나산은 이스라엘군 병력이 마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총질이 벌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은 라말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뉴시스

지역공감기업장소: 정몽규기념관

湖南新聞

전화 062-224-5900

팩스 062-222-5548

## 소방특별조사 불시 단속...사전통보 無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1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에는 1주일전 사전 통보후 실시해온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없이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불시소방특별조사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중 아무때나 불시에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아울러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 등 개수명령권을 발동키로 했다.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벌칙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소방청은 “층간 방화구획 미비, 합판 등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 위반행위 단속으로 법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입춘첩 쓰는 어린이들 입춘(立春)을 나을 앞둔 1월31일 경남 함양군 유림회관에서 유림과 어린이가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입춘첩을 쓰고 있다.

## ‘5·18 암매장 없었다’ 전두환 회고록 또 출판 · 배포 금지되나

5·18민주화운동 왜곡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의 두 번째 출판 · 배포 금지 여부 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1월31일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의 최종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시신을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가매장했으며 모두 수습됐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군 관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변호인단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5·18 당시 계엄군(3공수)들의 암매장 증언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조사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왜곡됐는지를 증거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통 2~3주 안으로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이르면 설 연휴(2월15일) 전 늦어도 2월말까지 ‘전두환 회고록’ 두

번째 소송의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가장 큰 목표가 5·18 진실규명이다. 5·18 왜곡을 뿌리 뽑고, 왜곡 세력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 7년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건강관리 받지 않은 사람	건강관리 받은 사람
일반건강검진	42%p 감소	
임검진	18%p 감소	

※본말고는 건강검진이 출생부터 1차 의료 기관 방문까지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